



Market Index / 28일

코스피지수 ▲

1941.09
+16.49

코스닥지수 ▲

602.90
+14.58

유가(WTI, 달러) ▲

54.93
+1.29

환율(원)

1USD
100₡살때
1235.75
팔때
1168.73팔때
1193.25
1128.53살때
1EUR
1373.86
1CN

177.78

팔때
1320.26
160.86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제주특별법과 충돌”

도 “법률 자문결과 외국인 입국 특례 규정과 상충”
ETA 사실상 비자… “무사증 이점 경쟁국에 뺏겨”

정부가 이르면 2020년부터 제주에서 시범 운영하려는 전자여행허가제(ETA)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과 법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 소속 법제관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자여행허가제는 제주특별법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28일 말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무비자)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하기 72시간 전에 우리나라 홈페이지

지에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여행 경비 등을 적으면 그 내용을 토대로 입국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여행허가 제도다. 법무부는 무사증 외국인의 불법체류 문제가 잇따르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제주에서부터 전자여행허가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전자여행허가제가 시행되면 제주가 2002년부터 유지해 온 무사증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제시된 법률 자문 결과도 제주도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197조는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에 체류하기 위해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게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실상 비자제도와 다를 없다”면서 “따라서 제주특별법이 정한 외국인 입국·체류 특례와 전자여행허가제는 충돌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을 적용할 때도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순위에 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법률적으로도 논리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제주도가 먼저 법무부에 전자여행

허가제 도입을 건의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제주에서 불법 체류자의 여성 살인사건과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의 성당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이듬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가 최근에 와서 입장을 바꿨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시에는 워낙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터라 도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제주에 오는 외국인의 45%가 무사증으로 입국하고 있는 데 전자여행허가제가 시행되면(무사증 관광시장) 다른 경쟁국가에 뺏기게 된다”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주간 재테크 핫 이슈 홍콩시위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중무력개입시 불안감… 타격 불가피

금융시장에서 최근 다양한 악재들이 불거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악재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지금은 미·중 간의 무역분쟁 우려로 다소 가려져 있었으나 미국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시위대와 경찰 간의 마찰이 심화되면서 홍콩 사태도 점차 시장의 불안요소로 커져가고 있다. 홍콩은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역할이나 위상이 큰데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력 진압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홍콩 사태 악화 시에는 중국경제 및 아시아금융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다. 일단 본국 송환법으로 초래

시아 국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홍콩 주가 급락과 태국 바트화 가치 폭락이 연쇄적으로 아시아로 전염된 것처럼 홍콩사태 악화로 인한 중국정부의 개입 그리고 이어지는 홍콩 주식시장과 부동산 자산가격의 하락, 중국 경제 성장을 하향과 위안화 가치 하락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된다면 아시아 통화시장에서 다시금 불안심리 확산으로 인근 국가로의 전염이 진행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홍콩은 한국의 4위 수출국이나 한국에서 홍콩으로 수출된 제품 대부분이 중국으로 재수출 되고 있어 중국이 무력 개입을 한다면 타격이 불가피하나 이 후 중국과의 직접교역을 통해 대

홍콩사태 악화되면 글로벌 금융시장 파급력 상당
외국인투자자 자본이탈 확산 우려 신중한 투자를

된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는 홍콩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 GDP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0.4%이기에 홍콩경제 악영향으로 인한 영향보다는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금융불안으로 인한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다. 중국 입장에서 홍콩을 통해 들어오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사태가 악화된다면 중국에 들어가는 해외직접투자가 위축될 것이고 이는 중국 경제성장률의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위안화 역시 직접투자 감소로 인한 외화자금 유출이 확대된다면 2015년과 같은 외환자금 유출로 인한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홍콩 주식시장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불러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인근 아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경제적 충격보다는 중국이 홍콩 사태에 개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중국경기 악화와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 확대이며 아시아 금융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홍콩의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이탈이 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결국 금융시장을 흔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중국정부의 홍콩사태 무력 개입을 가정하였기에 그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언제나 금융시장의 불안은 가능성이 낮은 부분에서 발생하고 그 충격 역시 크기에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현 정 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7월 제주 인구 순유입 전년보다 급감

346명… 경기·세종 이어 높아

지난달 제주지역에 순수하게 늘어난 순인구는 3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와 세종시 다음 큰 규모로 타 지역에서의 제주에 대한 관심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7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7월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 인구는 경기(1만4121명), 세종(2463명), 제주(346명) 등 5개 시도에서 순유입됐다. 반면 서울(-7077명), 부산(-1924명), 대구(-1788명) 등 12개 시도에서는 순유출되며 인구가 줄었다.

이에 따른 순이동률은 세종

(8.8%), 경기(1.3%), 제주(0.6%)는 늘어난 대신 대전(-1.1%), 서울·대구(-0.9%) 등에서는 줄었다. 세종시의 경우는 91개월째 인구유입이 이뤄지고 있다.

7월 한달간 제주지역에 들어온 전입자는 7034명이며, 반대로 제주를 떠난 전출자는 6688명이다. 순이동 인구는 346명으로 작년 동기의 929명에 견주어서는 급감했다.

전국적으로 지난달 이동자수는 5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0.9% 감소했다. 시도내 이동자는 67.0%, 시도간 이동자는 33.0%였다. 인구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은 12.9%로 1년 전보다 0.1%p 줄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농협하나로합창단 정기공연 성황 제주농협하나로합창단은 지난 27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9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서는 광복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어록과 행적을 영상물 통해 살펴보고 운동주 시인의 '서시'를 합창곡으로 선정해 부르며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사진·농협제주지역본부 제공

추석 기대감에 중소기업 경기심리 개선

9월 경기전망지수 8.3%p ↑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의 경기심리가 추석 명절 소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중소기업 4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9월 중소기업경기전망 조사'에서 9월 업황 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전월보다 8.3포

인트 상승한 77.4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항목별로는 제조업의 SBHI는 전기장비, 인쇄기록매체, 가구 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18.6포인트 상승한 86.1를 나타냈다. 비제조업의 경우 도·소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부문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인 반면 건설업과 숙박업 부분에서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해 전체적인 SBHI가 전월보다 0.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상민기자

	등록번호 :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완희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010-8660-1263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특) -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2,500㎡ 건 400㎡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1600㎡, 건 160㎡ -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삼도1동 2층 주택 대 165㎡, 건 150㎡ - 매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전)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 한경면 저지리 전(11,000㎡) 계획관리지역
	클라우드캠으로 촬영한 주요 관광지의 실시간 영상은 제주관광협회가 운영하는 종합관광예약 모바일 앱 '탐나오'와 관광정보 웹사이트 '하이제주'에 API 연동을 통해 제공된다. 이상민기자		

	동 부 공 인 중 개 사 ☎ 010-2800-4595 064-747-5115		
	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 문 복 ※김녕해안도로점 2474㎡ 15억원 - 해안동마을 맹지 대674㎡/매가50㎡ 5억 - 해안동 생관임야(목장) 맹지28,842㎡ 6억 - 상명리 조림식주택60㎡/대430㎡ 1.5억 - 수산동 저수지인근 카페음료점20㎡ 3.1억 - 판포 바다경관 곳 자연녹지 3028㎡ 6.4억원	※하례5.16도로동측과수원 8856㎡ 11억원 - 아라동기차촌내 1090㎡ 9.24억 - 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000만원 - 고성외고인근2차선전 대지조성 481㎡ 6.5억원 - 유수암 2차선 변 주택착공 토지 519㎡ 2.5억 -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중문고인근 자연독지 638㎡ 3.3억 - 선출검은오름 북측 주택용지 1002㎡ 2.2억 - 신촌 2중주거지역 대 157㎡ 1.7억 - 우도하고수동해수욕장인근 10,323㎡ 12.5억원 -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억 - 오리정실 마을내 587㎡ 7.65억원

• 예초기 / Brush Cutter • 잔디깎이 / Lawn Mower • 체인톱 / Chain Saw • 전정기 / Hedge Trimmer • 송풍기 (낙엽청소) / Blower

잔디깎이 벌초기계 체인톱

잔디깎이 : 동력(엔진·전기), 수동, 탑승식

예 초 기 : 견착식, 배부식(2단 분리형·일체형)

체인톱, 수벽전정기, 분무기, 양수기, 소형엔진, 파쇄기

정원산림관리 장비, 농업산업기계, 소형엔진 판매·정비

해륙기계 ☎ 722-3414-5
757-0165

구. 병무청 KAL 호텔 삼성형 자연사박물관

기산아파트 해륙기계 사리봉

제주시 삼성로 35(일도2동)